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Pontifical Foundation of the Catholic Church, Aid to the Church in Need

전화: 02)796-6440 팩스: 02)796-6439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후원계좌: 신한 100-031-121620 (사)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
홈페이지: www.churchinneed.or.kr 페이스북: @aidtothechurchinneed 인스타그램: @acn_korea



제 5호 · 2016.08



세계청년대회 - 하느님과 함께! 그 만남의 장소

**“우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끌어 주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성의 유산을 잇는 사회를
구축하게 도울 수 있도록
말입니다.”**

2015년 1월 18일 마닐라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7월 26일,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백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이 자비의 회년에 파우스티나 성녀의 도시를 찾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크라쿠프는 바로 세계청년대회를 창시하신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교황님은 재임 기간 동안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셨고, 우리는 그 자비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선하심이 어떤 악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라고 모든 이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청년들을 깊이 신뢰하시고, 청년들에게 자비의 소명을 의탁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은 별에 닿아
큰일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인류에 마지막 구원의 빛을 전한다. 바로 나의 자비의 은신처이다.” 예수님께서 파우스티나 성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폭력으로 휘청대고, 이로 인해 많은 것들이 파괴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방향을 잃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망망대해 위 작은 뗏단배와 같은 신세이며, 정박할 항구가 없어 희망을 찾지 못합니다. 정착할 수가 없으니 정체성도, 연결감도, 향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비의 빛을 내려 주십니다. 이 자비의

빛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닿고, 우리에게 정거장이 되어 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나와 이 세상을 받쳐 줄 수 있는 손이 있고, 이 손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끄시며, 그 누구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막아 주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확신에 반하여 테러나 자살 폭격 등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살펴보면 나이지리아의 도시 마이두구리(Maiduguri)에서 58명, 케냐 가리사(Garissa) 대학교에서 148

명과 함께 아파함으로써 내면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산들을 보아라. 내 구원 그 어디에 나를 향해 주님 오시네 자비로우신 분.” 세계청년대회 주제가인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의 첫 구절입니다. 청년들은 높은 산에 올라 별에 닿아서 큰일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모범이 되는 어른들을 우러러봅니다. 청년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느님의 선하심을 알아차릴 때, 자비의 소명에 동참하려는 소망이 자라날 것입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자국의 청년들도 크라쿠프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ACN에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곳 신자들에게는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형제자매 여러분의 기도와 모범적인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ACN에 요청을 보냈습니다. 그곳 신자들에게는 여러분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형제자매 여러분의 기도와 모범적인 모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을 전합니다.

마르틴 바르타 신부
국제 ACN 지도 신부

ACN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절두산 순교성지에서는 병인순교 150주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매달 ACN 한국지부를 통해 시리아 교회를 위한 성금을 전해 주시고 있습니다. “박해 받은 교회에서 박해받는 교회에게”라는 성지 사목목표를 정하고 박해받는 시리아 교회를 위해 크나큰 도움을 지원해 주시는 정연정 티모테오 주임신부님과 모든 순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5월에 이어 7월에도 많은 지원을 보내주신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님과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시리아 홈스대교구장 아르바흐 대주교님과 정연정 신부님



▲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님과 클라우자 지부장

서울대교구 석촌동성당

지난 5월 28일 그리고 29일, ACN 한국지부에서 서울대교구 석촌동성당을 방문하였습니다. ACN의 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의 레바논 및 이라크 방문과 더불어 중동지역의 형제자매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와 중동지역 형제자매들 그리고 저희 ACN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신 석촌동성당 교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기주 미카엘 주임신부님과 손태진 바오로 부주임신부님 그리고 황일룡 엘리야 보좌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클라우자 지부장의 중동 방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ACN 스페셜 리포트: 하느님 자비의 실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기주 미카엘 주임신부님
교중미사 강론 중

연간보고서 2015



믿음이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CN 예산 장부의 '수입' 란에 또 다시 큰 숫자가 찍혔습니다. '수입'이라는 메마른 단어 뒤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한없는 희생 정신과 자재로움입니다. 지난해, 1억 2,400만 유로(약 1,520억 원)라는 유례없이 많은 후원금이 ACN에 전달되었고, 이를 통해 저희는 전 세계의 고통받는 교회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대한 나눔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를 향한 끊임없는 신뢰에도 고개 숙여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는 이 결과가 적어도 ACN 모금 전략이 탁월했던 덕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의 형제자매들, 특히 중동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위기의 상황이, 자비의 회년을 맞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많은 형제자매들의 육신과 영혼에도 이러한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 당신이 현재에도 살아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올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ACN은 계속하여 아이들에게 비를 피할 지붕을 마련해 주고, 사제들과 수녀님들께 사목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국, 시리아, 이라크,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은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소리쳐 부르고 있습니다. 자비가 닿는 곳에는 어디나 사랑이 있으며, 이 사랑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이어 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헤르만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클라우자
ACN 한국지부장

여러분의 사랑은
다음과 같이 전달되었습니다.

♥ 미사 1,431,380대 봉헌

43,203분의 사제들, 즉 전 세계 사제 아홉 명 가운데 한 명은 ACN의 미사 봉헌을 통하여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후원자 여러분의 지향을 위하여 평균 22조마다 한 대의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 신학생 11,075명 지원

전 세계 신학생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2014년은 12명 중 한 명) ACN의 지원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아프리카(3,775명), 남아메리카(2,900명), 동유럽(2,883명) 등지의 신학생들입니다.

♥ 수도자 10,240명 생계 및 양성 지원

ACN은 전 세계 수녀님 67명 가운데 한 명을 지원합니다. 주로 관상 생활을 하시는 수녀님들에게 생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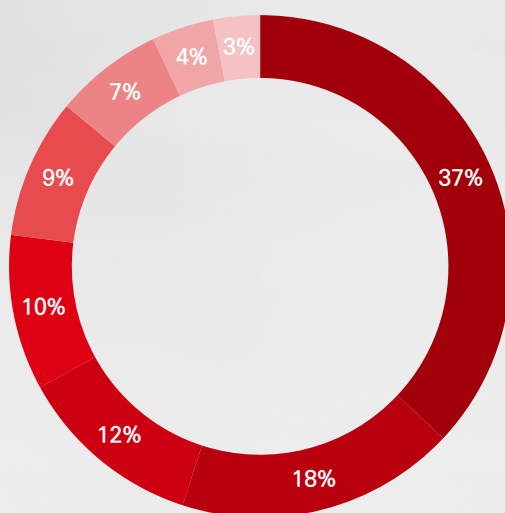
♥ 건설 프로젝트 1,674개 지원

전 세계적으로 경당, 성당, 대성당, 신학교 등을 새로 짓거나 보수, 증축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이 척박한 지역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 이동수단 1,255개 지원

지원 내역은 모두 자동차 524대, 오토바이 및 자전거 714대, 배 17척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지원하였습니다. 사목 활동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는 전체 프로젝트의 10% 가량을 차지합니다.

ACN 지원사업



- 건설 지원
- 미사 예물
- 사제 및 수도자 양성
- 종교 서적 및 가톨릭 미디어 지원
- 난민 지원 및 긴급 지원
- 평신도 교육
- 이동수단 지원
- 수녀회 생계 지원

지난해 총 6,209건의 프로젝트 진행

이는 전년보다 13%(약 600건)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안타깝게도 1,110건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난민 지원 및 긴급 지원

중동 지역의 그리스도인 소수자들에 대한 박해가 계속되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남수단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ACN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지역에 4,460만 유로(약 570억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건설 지원

주로 성전, 수도원, 사제관, 신학교 등 교회 건축물 건설을 위해 3,450만 유로(약 442억 5천만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 수도자 양성 및 교육

수녀 및 청원자, 신학생, 사제들과 다른 성직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해 832만유로 (약 106억 6천만 원)를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부금 수입 (단위: 유로)

국가별 지부	2015년	2014년
오스트레일리아	2,525,367	2,419,615
벨기에/룩셈부르크	3,590,825	3,933,681
브라질	3,662,022	3,845,039
칠레	1,219,544	1,234,731
독일/베렌프리트 재단	10,513,008	11,276,439
프랑스	36,590,066	28,587,173
영국	13,841,433	10,744,007
아일랜드	3,686,081	2,929,449
이탈리아	2,489,666	2,108,788
캐나다	2,104,063	1,372,331
콜롬비아	97,336	11,760
몰타	124,653	(2015년 설립)
멕시코	210,598	34,094
네덜란드	3,588,677	3,799,923
오스트리아	2,973,358	3,062,598
폴란드	2,085,253	1,992,558
포르투갈	2,589,808	2,217,943
스위스/리히텐슈타인	10,287,979	9,658,896
스페인	13,219,164	9,509,671
대한민국	85,322	(2015년 11월 설립)
미국	6,937,440	4,691,309
국제 총 사무국	1,313,515	2,230,441
전체 수입	123,735,178 (약 1,520억 원)	105,660,447 (약 1,300억 원)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백만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지켜줍니다.

수익	€	%	비용	€	%
모금 수입	82,053,469	66.1 %	사업비용		
미사 예물	10,800,007	8.7 %	-사업 지원금	94,829,344	76.4 %
유산 기증	26,640,602	21.5 %	-사업 관련 지출	2,595,848	2.1 %
재산처분수입 및 세금감면혜택	3,813,209	3.1 %	-홍보, 언론, 사목 활동 지원금	15,226,747	12.3 %
잡수입	427,891	0.3 %	총 사업비용	112,651,939	90.8 %
소계	123,735,178	99.7 %	투자비용	12,141,946	9.8 %
사업 외 수입	389,301	0.3 %	관리비용	8,099,035	6.5 %
총수입	124,124,479	100 %	총 사업 외 비용	20,240,981	16.3 %
			당기순이익(손실)	-8,768,439	-7.1 %

해당 보고서는 각 국가 지부에서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KPMG로부터 검토 받았습니다.

전 세계 140개국 후원

그 가운데 다음 10개국으로 가장 많은 지원이 전해졌습니다. (단위: 유로)

1. 이라크

2015년: 10,699,379
2014년: 4,664,145

2. 인도

2015년: 6,865,067
2014년: 4,949,670

3. 우크라이나

2015년: 6,252,613
2014년: 5,124,211

4. 시리아

2015년: 5,618,278
2014년: 1,942,451

5. 콩고민주공화국

2015년: 3,349,377
2014년: 2,874,460

6. 브라질

2015년: 2,673,268
2014년: 2,445,697

7. 에티오피아

2015년: 2,362,922
2014년: 1,202,149

8. 탄자니아

2015년: 2,129,581
2014년: 1,226,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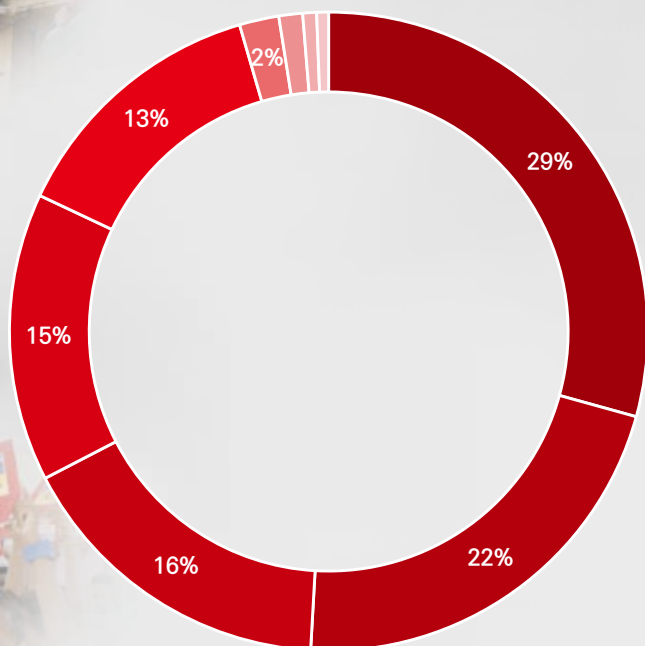
9. 페루

2015년: 1,856,248
2014년: 1,173,599

10. 레바논

2015년: 1,720,609
2014년: 1,015,127

지역별 사업지원



2015년에도 위기에 처한 중동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였고, ACN의 지원 역시 해당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긴급 지원과 장기 프로젝트에 투입된 비용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는 현재 전체 지원금의 1/5 이상(21.6%)에 해당됩니다. 아프리카만이 29.3%로 이를 웃돕니다. 시리아 지원 비용이 3배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동유럽 지역은 150만 유로(약 19억 원), 아프리카는 780만 유로(약 97억 원), 중동 지역은 1,150만 유로(약 185억 원)가 증가하는 등 세계 모든 지역의 지원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대륙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에서 2,093건으로 가장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다음으로는 동유럽,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순이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는 가장 많은 미사 예물이 전해졌습니다. 남아메리카는 생기 넘치고 젊은 대륙으로서 많은 가톨릭 공동체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이단들과 마약 중독자들이 잡초처럼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특히 교리 교육에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평화의 집”

알제리는 현재 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제리의 동부 도시 스킨다(Skikda)의 소수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몇십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성전에도 매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 본당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으로 70년대에 성전 건물을 헌정하였습니다.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 없었고, 신자들은 사제관에서 공동체를 운영했습니다. 이곳 신자들은 현재 다용도 건물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부속 건물과 지붕을 보수하고 수도, 가스, 전기관을 놓았습니다. 신부님들, 학생들, 방문자들 모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요한 기도방을 갖춘 성전한 곳을 짓고자 하지만 콘스탄틴 교구의 경제적 위기로 상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운영을 위한 헌금과 기부금은 지난 2년 동안 급격히 줄어든 것에 반해 물가는 급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나 아시아 또는 이집트 출신인 학생들이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다행히 알제리 형범은 개종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제리인들도 상당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이곳이 ‘평화와 자유의 장소’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사랑의 긍정적 영향입니다. “대화는 불관용과 폭력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해독제입니다.”라고 베르나드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ACN은 날로 변형하는 공동체에 성전과 사무관 건축을 마무리하기 위해 2만 유로(약 2,600만 원)를 지원하려 합니다. 거대한 이슬람 사원의 그늘 아래서도 봄날의 사랑이 머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
사랑만이 진정한 봄날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은 환영받습니다.

자비의 공식: 말씀, 기도, 실천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전 세계 청년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원이 없었다면, 수많은 젊은이들은 크라쿠프 세계청년대회에 결코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리아 가톨릭 25명과 다른 교파 22명, 이집트 콥트교 65명 등 중동의 젊은이들과 남수단 가톨릭 청년 30명을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우루과이, 에콰도르의 청년들이 ACN의 지원으로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청년들이 폴란드 크라쿠프(Kraków)에서 만났습니다.

크라쿠프 세계청년대회의 표어는 마태오 복음서 5장 7절 말씀인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입니다. 젊은이들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비의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께 말씀하신 바가 바로 크라쿠프의 영성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웃을 향한 자비를 드러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다. 실천, 말씀, 기도가 그것이다. 이 각각의 단계마다 자비가 풍만하게 깃들 것이다.”

말씀, 기도 그리고 실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이를 실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3년 전 브라질 리우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했던 방글라데시 청년들



소수민족의 작은 지역이 순례지가 되다.

세네갈 사보이농(Savoigne)의 소수민족, 이슬람 사막에서 375명의 영혼들이 물을 마시는 작은 가톨릭 오아시스입니다.

생루이(Saint-Louis) 교구 지역의 주민들 중 90%는 무슬림입니다. 현재는 비교적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지만, 엠마누엘 자나보니(Emmanuel Zanaboni) 신부님께서 젊은 선교사로 공동체를 맡으셨던 34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거의 버려진 곳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엠마누엘 신부님은 완공되지 못한 임시 건물 안에서

사목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길 잃은 양들’을 모으고 저녁마다 젊은이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시편을 공부하며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회관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13세기에 제작된 성모상을 이탈리아에서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은 바로 병자들의 성녀가 되셨습니다. 기도와 믿음의 영향이 퍼지면서, 수도 다카르(Dakar)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이곳으로 순례자들이 찾아옵니다. 사보이농은 점점

순례지로 발전하였고, 지금은 성당이 너무 협소해졌습니다. 미사 때마다 신자들의 반 이상이 문 밖에서 참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순례객들을 위한 숙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2년 전 순례자를 위한 성전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크건 작건 상황이 되는 이들은 모두 도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ACN 또한 3만 유로(약 3,800만 원)를 건축 재료를 구입하는데 보냈습니다. 우리는 병자의 성모님과 함께 사막 한가운데에서 밀알 하나를 싹 틔웠습니다.



벽돌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손을 보탬니다.

신앙 안에서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다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사도 8,27)

에티오피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최빈민층에 속합니다. 보배가 아닌 가난과 함께하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들의 보배는 영성체입니다. 지마봉가(Jimma-Bonga) 교구의 아르구바(Arguba) 본당 신자들은 제의, 서적과 영성체 도구 등을 소중히 여기지만 이를 보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조 건물에다가 짚으로 지붕을 열기설기 엮어 세운 교회는 쥐와 흰개미와 여러

해충들이 들끓는 데다가 비바람도 견디기 어려워서 적어도 2년마다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석조 건물을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사도 8,36)라고 세례를 받았던 에피오피아 내시는 필리포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돕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오두막 때문에 하느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일은 선한 의지를 가진 에티오피아인들에게 단연 없었습니다. 튼튼하지만 소박한 석조 성전을 바라는 것이 결코 사치는 아닐

것입니다. 유럽, 아메리카, 호주, 아시아의 형제자매들의 관대함 덕분에 그들의 신앙은 더욱 충만해집니다. ACN은 아르구바 교회에 3만 유로(약 3,800만 원)를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지마봉가 교구에는 만자(Manja)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들을 지원하고자 2천여 명의 만자족 신자들을 위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도 성전이 한 곳 필요합니다. ACN은 여러분의 자비를 통해 3만 유로(약 3,800만 원)를 전달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충실한 신앙에 보답했습니다.



인도 남동부 마을 톨리(Thynri)의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본당 신자들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허락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산악 지대인 데다가 우기에는 비가 심하게 내려 5월부터 10월까지의 외출을 하기조차 힘든 지역입니다. 신부님들은 해마다 서너 번 정도 이곳을 방문하십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건축 재료를 살 수 있었고, 신자들이 모두 열심히 도왔기 때문에 다행히 우기 전에 때맞춰 성전을 완성하고 축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전은 이 마을의 심장 같은 기능을 합니다. 삶의 중심으로, 주일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노래하고 하느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안토니 카타타라(Antony Kattathara)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안토니 신부님은 공동체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이곳 신자들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이지만, 그들의 신앙은 무엇보다 굳건합니다!” 이제 튼튼한 성전만큼 이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국제 ACN 대표
요하네스 헤르만

Baron Johannes
von Heereman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제가 되고 나서 첫 번째로 봉헌하는 미사는 언제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사를 봉헌하면서 사제가 성찬의 전례 때 “마음을 드높이!(Sursum corda)”라고 말하고 공동체 신자들이 “주님께 올립니다!”라고 응답할 때 그곳에는 믿음에 대한 벅찬 기쁨이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 젊은 사제가 이끌어 갈 미래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아들이 고향 첫 미사를 봉헌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첫 미사는 제 마음을 감격스럽게 주님께 올렸습니다.

오늘날 새 사제로서 드리는 이러한 첫 미사는 대부분 아프리카, 남미, 인도 등지에서 봉헌됩니다. 허름하고 안정되지 못한 건물에서 미사 전례가 이루어지지만, 그들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올리는데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땅하고 옳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공동체에 안정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성전은 주님이 머무는 집으로서 기도의 장소이고, 마음을 주님께 올리는 영원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애로운 후원으로 가능했던 여러 건설 지원 사업은 신앙의 영속을 위한 실천 사업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 “하느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성체 성사는 응답하시는 하느님께서 현시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체성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진정 우리를 고양시키는 하느님의 응답입니다.

Johannes von Heereman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저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얼마 전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 둘은 ACN의 국제 활동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선물과 축의금의 1/4을 ACN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프랑스 신혼 부부

휴가를 포기하며

저는 특별히 휴가를 보내지 않고 그 비용을 ACN에 기부하곤 했습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그 돈이 얼마 되지 않아요.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쁨과 감사를 전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저도 이를 위해 정성을 보태고자 합니다.

포르투갈의 후원자

지인들에게 온라인으로 나누는

ACN 뉴스

시리아 및 여러 국가에서 진행되는 ACN의 활동은 매우 헌신적이고 자애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CN의 ‘사랑의 메아리’를 항상 식탁 위에 둡니다. 사진과 기사들은 제게 항상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ACN의 웹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여러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기사를 읽는다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스트리아의 후원자



ACN 설립자, 베네포리트 신부님의 묘자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www.churchinneed.or.kr

@aidtothechurchinneed

@acn_korea

문의전화 02)796-6440 | 팩스 02)796-6439 | 이메일 info@churchinneed.or.kr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67 8층 (신수동, 대승빌딩)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1-121620 | 예금주 사단법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코리아